

QR코드를 찍으면
인터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블록놀이와 한글공부의 만남

‘IoT 기반 자기주도학습 및 양뇌형 인재양성을 위한 블록형 한글학습 교구’ 기술 개발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용품 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 증가와 맞물려 한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투자가 늘었기 때문. 특히 유아 완구는 물론,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완구 및 교구 시장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기업이 있다. 단 5개의 블록만으로 한글을 구현하고 지동인식으로 음성지원을 해주는, 국내 최초의 블록형 한글학습 교구를 개발한 디에이치이비즈를 찾았다.

기술지원기업 (주)디에이치이비즈

연구책임자 융합생산기술연구소 CT융합그룹 김은호 수석연구원

아이디어가 제품이 되기까지

디에이치이비즈는 지난 2008년 광고회사로 처음 문을 열었다. 모든 사업의 기반이 되는 마케팅을 시작으로 역량을 키워나가다가 지난 2013년 법인으로 전환했다. 광고회사다 보니 제품만 있으면 파는 건 자신이 있었지만, 늘 우리만의 제품, 우리만의 브랜드에 목말라 있었던 디에이치이비즈. 제품 개발에 대한 꿈은 2014년 김길중 부대표가 입사하면서 조금씩 구

체화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여러가지 제품의 아이디어를 내는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이 아이템을 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디어뿐이었는데 시장조사 후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입사 후 상용화에 도전했죠.” 하지만 막상 제품 개발에 들어가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제품화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높은 단가도 큰 문제였다는 김길중 부대표는 “제품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가를 낮추는 일”이라며 생기원과 함께 고민했던 부분 역시 “어떻게 하면 기술적으로 단가를 낮추는가” 하는 문제였다고.

“연구개발과 상용화의 간극이 이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기술적으로 막히는 부분도 많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았죠. 생기원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제품화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 모르겠습니다.”

블록놀이와 한글공부의 만남

디에이치이비즈와 생기원의 인연은 지난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CT융합그룹 김은호 수석연구원은 다른 업체의 기술지원을 돕던 중, 디에이치이비즈의 아이템을 접하게 됐다. 이후 김은호 수석연구원은 김길중 부대표와 만날 때마다 아이디어를 공유하

▼ CT융합그룹 김은호 수석연구원(좌)과 (주)디에이치이비즈 김길중 부대표(우)

